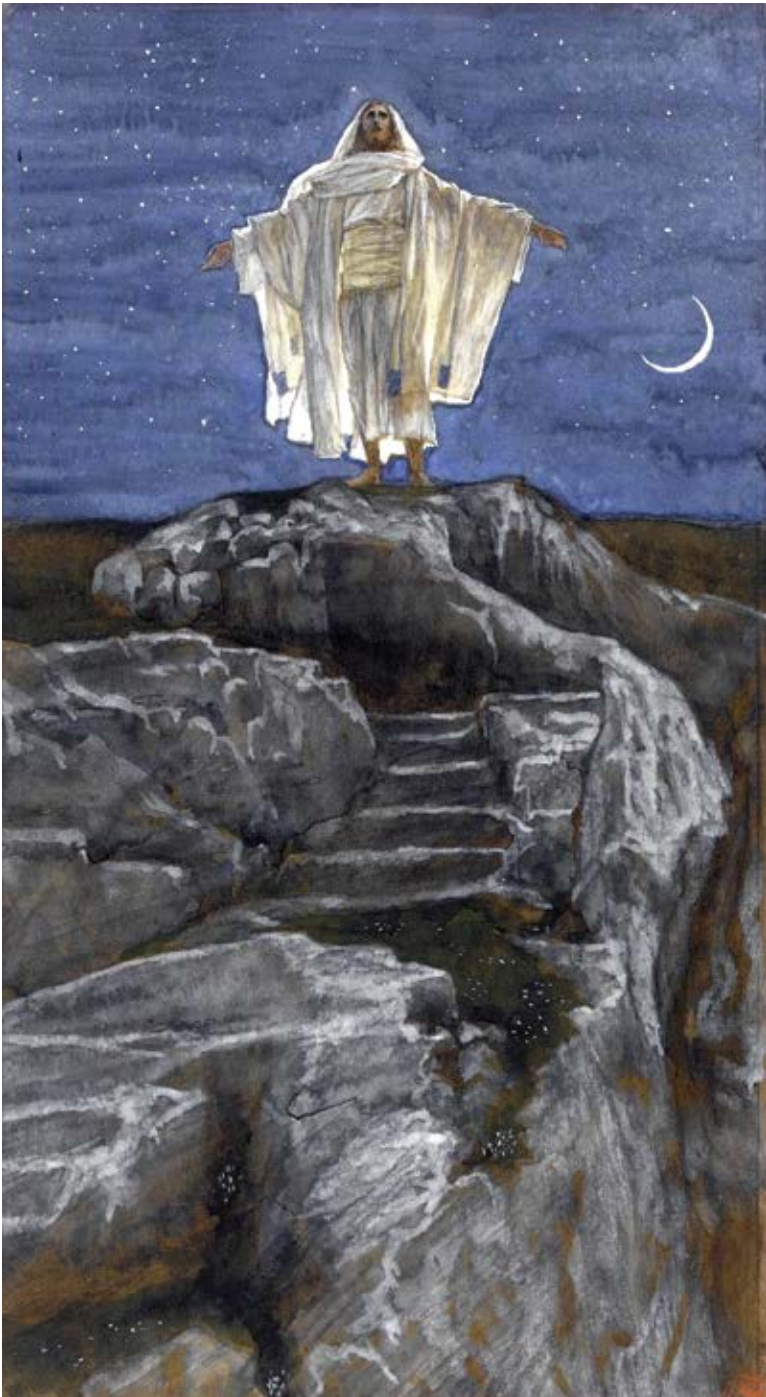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루카 복음 (13,23-24)



[제1독서]이사야서 66,18-21

[화답송] 시편 117(116),1,2-3
(© 마르 16,15 참조)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2독서]히브리서 12,5-7,11-13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복음] 루카 13,22-30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183] 구원을 위한 희생
- 파견성가: [4] 찬양하라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때에 ²²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²³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²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질 못할 것이다.

²⁵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²⁶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²⁷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²⁸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²⁹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³⁰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Jesus passed through towns and villages, teaching as he went and making his way to Jerusalem.

Someone asked him,

“Lord, will only a few people be saved?”

He answered them,

“Strive to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many, I tell you, will attempt to enter but will not be strong enough.

After the master of the house has arisen and locked the door, then will you stand outside knocking and saying,

‘Lord, open the door for us.’

He will say to you in reply,

‘I do not know where you are from. And you will say,

‘We ate and drank in your company and you taught in our streets.’

Then he will say to you, ‘I do not know where you are from.

Depart from me, all you evildoers!’

And there will be wailing and grinding of teeth

when you see Abraham, Isaac, and Jacob

and all the prophets in the kingdom of God

and you yourselves cast out.

And people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and will recline at table in the kingdom of God.

For behold, some are last who will be first,

and some are first who will be last.”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 첫머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성찰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 나라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내 상태에 안주해서는 결코 들어가질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게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려면 먼저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나는 그분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부터 인정해야만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과 불의가 선과 정의를 이기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 영혼, 사랑 등이지요. 어떤 사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내가 하느님을 볼 수 있으므로 믿는다.’가 아니라, ‘하느님을 볼 수 없어도 믿는다.’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기에 믿기보다는 나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지 않으셔도 믿어야 합니다. 이럴 때 나의 믿음은 굳건해질 것이며,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마저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모성의 이상적, 완전한 상징

알바 마돈나

마돈나는 가톨릭교회가 숭상하는 동정녀 성모 마리아의 호칭으로 기독교 미술에서 아기 예수를 안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성모자상은 화가들이 선호하는 주제로 현재까지 수많은 작품이 제작되었다. 내셔널 갤러리는 예술가가 천재라는 개념이 탄생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 하나인 라파엘 (Marchigian, Raffaello 1483~1520)의 미국 내 가장 중요한 명작 '알바 마돈나 Alba Madonna'를 소장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스페인 귀족 알바 가문의 소장품에서 명명된 알바 마돈나는 52점의 하이라이트 컬렉션 중 한 점이자 6개국어의 최다 오디오 버전을 제공한다. 관람객은 화려한 금색 메달리온 속 매혹적인 모자상과 라파엘의 연작 두 점이 더 전시된 16세기 이탈리아 관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화가였던 그는 이 작품에서 당대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정신과 인문주의 부활을 완벽하게 입증한다.



〈알바 마돈나〉
라파엘, 1510, 유채화 94.5cm

라파엘은 진부하고 식상한 주제인 성모자상에 성서 내러티브의 세례자 요한을 등장시켜 새로운 창조 영역을 개척해 명작을 탄생시켰다. 관람객은 절로 미소 짓게 되는 천진난만한 두 아기와 천상의 옥좌나 화려한 쿠션대신에 지상 들판의 소박한 나무의자에 앉은 겸손한 마돈나(The Virgin of Humility)와 만난다. 원형 톤도(Tondo) 프레임의 본질적 속성인 연속적 움직임은, 초월적 운명의 단단한 고리로 연결된 세 인물이 형성하는 피라미드 구조의 완벽한 균형으로 화면을 압도하며 긴장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전달한다. 고전 조각을 회상하는 복잡한 포즈의 마돈나 뒤로 펼쳐진 로마 캄파냐 지방 풍경은 당대 일상사를 대입한 동시에 목가적인 이상향 아르카디아를 표명한다. 아기 요한의 머리 뒤편 고요한 강은 죄의 죽음에서 영원한 삶을 부여 받아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는 세례의 은총을 내포한다.

세 인물의 영롱하고 진지한 시선은 십자가를 향해 집중하며, 직관적으로 사건과 행위의 중요성을 감지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이 건네는 십자가를 움켜쥐는 순간, 아기 예수는 예견된 인류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완벽히 수용하여 포용한다. 표면의 잔잔한 중력 그리고 마돈나와 두 아기의 심오한 눈빛과 자세는 다가올 격랑을 대비한 암묵적 이해이자 동의이다. 인물 주변 들판과 세례자 요한이 안고 있는 아네모네는 그리스도의 수난에서 피와 부활의 상징으로 마돈나의 슬픔을 대변한다. 정교한

세부묘사, 단단한 윤곽선, 이상적 구도와 명암, 인물의 영웅적 무게감, 색채와 빛의 효과적 표현이 유감없이 발휘된 화면은 세련된 시각언어의 미학적 극치를 보여준다. 라파엘은 당대 화두였던 우아한 아름다움, '그라치아(Grazia)'를 혁신이나 비극적 반항 없이 이 작품에서 조화롭게 달성한다.

라파엘은 대가다운 통찰력으로 인물과 자연의 관계, 즉 텍스트와 풍경설정의 통합적 혁신을 예술적 개념으로 검증하여, 그림의 형태와 의미를 자연스레 연결시켜 시대를 초월한 걸작을 남겼다. 관람객은 500년 전 땅 바닥에 내려앉은 고결한 성모인 겸손한 마돈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 인간 세상으로 오심을 확인한다. 마돈나는 세례자 요한과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에 긴밀하게 동참한 공동협력자로서의 모습을 재현한다. 원형 패널에 새겨진 순교와 영원의 색상, 장밋빛과 담청색 의상의 찬란한 마돈나의 아름다움은 천상의 희망과 은총을 환기시킨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생명을 선물한 영원한 모성의 상징이다. 마돈나는 인류의 완전한 어머니로서 죄인인 모두를 위한 중재자이자 자식을 향한 모성의 완전한 원형이다.

〈이순희 아네스〉

● 비엔나 구역 1반



5 가정, 7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화원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불화와 분열”을 언급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나누기를 통해, 신앙은 적당히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험한, 그래서 어려운 힘든 길을 가며 함께 극복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들은 또한 30주년 설문조사와 행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 비엔나 구역 2반



8 가정 13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명 안젤로, 이영인 안나 부부 집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수난과 죽음을 예고하며 불을 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여러가지 예를 들며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참된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에 모두 동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날 생일을 맞은 조 로사 자매를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우드브릿지 구역



8 가정 11명이 함께 한 가운데 최 마리아 자매 집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말씀 나누기를 통해 주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맞지 않으면 타협하지 말도록 노력하며, 안일무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는 프레드릭스버그에 사는 권옥순 예비자가 참석하여 구역 식구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 애난데일 구역 2반



12명의 구역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애난데일 노인아파트에서 있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말씀 나누기를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의 분열이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하여 서로 의견 소통의 시간을 갖고, 기도로 극복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 알렉산드리아 구역



● 애난데일 구역 3반

5 가정 10 명의 구역식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어떠한 역경과 불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순교자적 믿음과 불처럼 타오르는 주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 이들은 또한 사제에 대한 순명의 정신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했다.

9 가정 14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하여 중화원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 날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했다. 참석자들은 또 설문 조사 및 성경퀴즈대회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2016 CCD Summer Camp

CCD held its annual Summer Camp at Pine Creek Retreat Center in Gore, Virginia just outside of Winchester from August 12th to August 14th. Roughly over forty students joined Father Seong, Camp Director Chris Suh, MC Robert Kim, SoSaYeSa and counselors and other staff members from Logos to spend time discussing what it means to be “Sharing with God”. They arrived at the camp site on August 12th (Friday) and spent the day playing icebreakers and getting to know each other. The students were formed into five separate groups consisting of Team Hulk, Team Ironman, Team Captain America, Team Thor, and Team Spiderman. They created and shared team flags along with their team slogans all dealing with sharing with one another and with God. It was a fun way to introduce everyone to the 2016 CCD Camp theme. Everyone also viewed “The Giving Tree” and held team discussions and performed skits demonstrating how they can apply the message of The Giving Tree into their lives!

On Saturday, August 13th, the campers competed in various games at the gym then cooled off for a couple of hours at the pool. They were even treated with ice cream from Father Chung who dropped by as a surprise to say hello to everyone! During the evening all the students took Mass with Father Seong before spending the time to write letters to God which we later sent up to Him during the camp fire session. The students received awards and enjoyed delicious Smores before finally heading off to bed.

The staffs and students want to thank God for allowing us to successfully hold CCD Camp this year! The staffs extend our thanks all the participants, the parents, Father Chung and Father Seong, SoSaYeSa and Logos for volunteering their time to come together for a blessed week-end. We hope to see you all next year as well!



Corona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 Feast date : August 22



October 11th, 1954, Pope Pius XII established the Feast of the Queenship of Mary to be celebrated throughout the world, and commanded that on that day each year, the world should renew its consecration to her. In the future the Feast came to be celebrated on the 22nd of August.

“The purpose of the Feast is that all may recognize more clearly and venerate more devoutly the merciful and motherly sovereignty of her who bore God in her womb” (Ven. Pius XII, Ad. Coeli Reginam).

On the day of her Assumption, Mary our Mother was solemnly crowned by Christ and received by the whole court Heaven as Queen.

What Christ has done in Heaven and the Church has done on our behalf we should now do individually, that is, we should recognize Mary's Queenship, enthrone her in our homes, consecrate ourselves to her and, by this means, establish in our lives the reign of Mary Immaculate Queen of the Universe.

ANNOUNCEMENTS

1 2016-2017 SPC Sunday School Registration

- Periods : Sundays, August 21, 28 & September 4
- Location : Hasang Lobby
- Time : 9:15am - 11:30am, 12:40pm - 1:30pm
- Registration Fees :
1 child \$80,
2 children /per family \$150 ,
3 or more children /per family \$200

2 Sunday School seek catechists & assistants for the 2016-2017 school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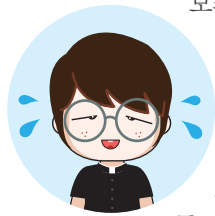
-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at spc15.re.admyc@gmail.com for more information.



헨리 나웬의 살며 춤추며

*The dance of life :
spiritual direction
with Henri Nouwen*

마이클 포드 역음/ 이현주 옮김
바로로딸 출판



보좌신부에게 여름은 너무나도 바쁜 시간입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CCD 캠프와 CYO 캠프, 그리고 복사단, 전례부, 성가대 소풍 등을 준비하고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페루 선교도 다녀왔고, 로고스 청년 캠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글도 CYO 캠프에 와서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름휴가를 이미 다녀오셨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휴가를 위한 휴가가 필요하다.” 물론 휴가를 다녀오면 잠시 일상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적응이 잘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달 페루 선교를 다녀와서 한동안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페루에 있었던 일주일의 시간 동안 머리를 쓰기보다 몸을 먼저 움직이는 단순한 생활을 했었는데, 다시 미국에 돌아와 이것저것 밀린 일들을 하려니 머리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가를 위한 휴가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휴가 기간 동안 몸을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들어서 휴가가 끝나고 나면 체력이 떨어져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휴가가 휴식을 통해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힘을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휴가가 끝나면 남아있는 힘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고, 특히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이클 포드’가 엮은 “헨리 나웬의 살며 춤추며”라는 책입니다. ‘헨리 나웬 신부는 이 시대 영적 순례자들을 위한 참으로 미쁘신 안내자입니다.’라는 번역자의 말대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 가는 좋은 길을 안내해 줬던

헨리 나웬 신부의 글들을 엮은 책입니다.

영성 서적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고, 지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책은 그런 생각들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 슬픔, 아픔, 억울함, 두려움, 분노, 증오 등 온갖 어두운 경험을 똑같이 겪고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아울러 그러한 경험이 우리 여정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참 평화와 자유로 가는 길임을 입증’해준다고 소개하듯이 이 책은 일상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또 알아듣기 쉽게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에서 오늘은 ‘홀로 있기(solitude)’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다. ... 우리의 독존(獨存, aloneness)은 독특함의 다른 얼굴이다. 문제는 우리의 독존을 외로움으로 만들 것인지, 홀로 있기로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독립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홀로 있기’를 통해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말합니다.

“ 영성생활의 첫 번째 특성은 끊임없이
외로움에서 홀로 있기로 옮겨 가는 것이다. ”

왜냐하면 ‘홀로 있기를 잘하면 하느님 사랑으로 한 곳에 부름받아 살고 그분 안에서 쉬며, 저마다 자기를 표현하는데 서툰 한계가 있어도 그분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즐겁게 살면서 하느님께 의존하는 법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홀로 있기’를 통해 더 이상 주변의 온갖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고요한 내면의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홀로 있기’가 쉽게 이룰 수 있거나, 또 한 번 다다르면 영원히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유혹들이 다가오듯이 세상의 많은 변수들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홀로 있기’의 시간을 흔들며 방해합니다. 하지만 늘 자신의 내면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며 홀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영성생활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제 여름도 거의 지나갔고, 휴가, 방학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너무 덥다는 이유로, 또 휴가라는 핑계로 조금은 하느님과 멀어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분명히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시끄러움, 인간관계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조금 떨어져 하느님과 함께 하는 ‘홀로 있기’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를 더 평화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1 하상회
 • 일시: 8월 21일(일) 오전 11:30 (B-3,4)

2 안나회
 • 일시: 8월 21일(일) 오전 11:30 (A-1,2,3,4)

3 꾸리아
 • 일시: 8월 21일(일) 오전 11:40 (하상관 B- 4, 5)

4 K of C 피자
 • 일시: 8월 21일(일) 오후 1시(성당)
 • 주제: 봉사하는 삶
 • 회원이 아닌 일반 신자분들도 환영합니다.

5 Quo Vadis (성소후원회) 모임
 • 일시: 8월 21일(일) 오후 1시(B-3,4)

6 바오로회 정기 모임
 • 일시: 8월 21일(일) 오후 4시(친교실)

7 베드로회 정기모임
 • 일시: 8월 21일(일) 오후 1시(B-1,2)

8 요한회 정기모임
 • 일시: 8월 28일(일) • 대상 : 50대 형제 자매
 • 문의: 윤봉근 도미니코 (703) 307-7939

9 K of C 정기모임
 • 일시: 8월 28일(일) 12:00 (B-1,2)
 • 문의: 김 버나드 (703) 342-2194

10 K of C 토막 세미나
 • 일시: 8월 28일(일) 오전 11:30-12:00 (B-1,2)
 • 주제: 난폭운전 19가지 • 강사 : 허 진 변호사
 • 문의: 김 버나드 (703) 342-2194

11 신앙/영성 세미나(교육부 주최)
 • 일시: 8월 28일(일) 오전 11:30 - 13:00 (A-1,2)
 • 고 이태석(요한) 신부님 강의 (동영상)
 • 문의: 윤재원 베드로 (215) 510-7513

12 불우이웃돕기 5k걷기/뛰기 대회 (복지부 주최)
 • 본당 공동체 창설 30주년 기념행사로 실시되는 불우이웃돕기 5k 걷기/뛰기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9월 17일(토) 오전 7:30 - 오전10시까지
 • 신청: 8월 21일 - 9월 11일, 8시,10시 11:40 미사후 (친교실)
 • 문의: 김재호 라우렌시오 (571) 345-5442

13 2016 - 2017년도 주일학교 등록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을 받고 있으니 학부모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9월 4일까지
 • 등록비: 한 자녀 \$80/ 두 자녀 \$150/ 세 자녀 \$200
 • 신청: 하상관 주일학교 교무실 오전 10시 미사 전후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14 2016 - 2017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안내
 • 입학 대상: 유치부 - 12학년
 • 학사 일정: 2016년 9월 10일 - 2017년 5월 13일
 • 등록접수: 친교실(오전 8시,10시 미사 후) 9월 4일까지
 • 우편 접수: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학비: 등록비 포함, 첫째 자녀: \$490, 둘째 자녀: \$450 셋째 자녀: \$400
 • 문의: 육옥영 교감 (703) 598-5540

15 2016 - 2017년 하상한국학교 교사 및 자원 봉사자 모집
 • 관심 있는 분은 8월 21일까지 교사 지원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 봉사자에게는 봉사 시간에 따라 대통령 봉사상 메달이 수여됩니다.
 • 문의: 육옥영 교감 (703) 598-5540

16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주일학교에서는 교리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교우들은 성당 사무실이나 주일학교 교무실로 연락주시시오.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성당 사무실 (703) 968-3010

17 2016년 하상성인학교 가을학기 안내
 • 교육 기간: 2016년 9월 6일 - 2016년 12월 4일
 • 등록: 2016년 8월 21일, 28일, 9월 4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오전 9시-12시), 친교실
 • 수강 과목: 컴퓨터기초, 컴퓨터중급(인터넷, 워드), 컴퓨터고급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패드, 동양화반(초급, 중급, 미술(덧상, 수채화, 아크릴), 시민권준비반, 문예창작교실(시), 생활영어, 수지요법(초급, 중급), 손뜨개교실, 한의학 건강상식, 생활교실, 합창교실, 한국무용, 장구반(초급,중급), 기타 교실(초급, 중급), 스트레칭 요가, 라인댄스
 • 개강일: 2016년 9월 6일(화), 오전 9:20
 • 대상: 전 신자와 일반인 20세 이상
 • 등록금: \$50 (점심 제공)
 • 문의: 김명희 (올리아나) 703-217-2775

정인준 주임 신부 귀임
 정인준(파트리치오) 7대 주임 신부 (9.19.2012-8.18.2016)가 18일(목) 송별미사후 한국으로 귀임했습니다.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8월 21일(일)	연중 제21주일	하상회(11:30, B-3,4), 안나회(11:30, A-1,2,3,4), KofC피자(13:00,성당) 꾸리아월례회의(11:40, 하상관B-4,5), Quo Vadis 성소후원회(13:00, B-3,4), 베드로회(13:00, B-1,2)
8월 22일(월)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아침 미사(6:00, 성당)
23일(화)	연중 제21주간 화요일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20:00, 친교실), CLC 피자(20:00), 예비자 교리(20:00)
24일(수)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25일(목)	연중 제21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26일(금)	연중 제21주간 금요일	CLC(20:00), 울프레아(20:00), 프란치스코(20:00)
27일(토)	성녀 모니카 기념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M.E 봉사자 모임
28일(일)	연중 제22주일	K of C 정기모임(12:00, B-1,2), K of C 미니 세미나(11:30-12:00, B-1,2), 요한회(11:30, B-3)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8월 25일 (목) 오후 9시~11시

- **가톨릭 소식**: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인터뷰, 아, 사람**: 화가 김현정 소화 데레사 1부. 가톨릭 영상심리상담 봉사자라도 활동하는 배우 겸 전통 화가
- **생명 그리고 사랑**: 첨단 의술을 통한 생명 존중. 서울 성모병원 최소침습 및 로봇 수술 센터
- **명불허전**: (명불허전)서석희 신부 - 영화속 속음 이야기

www.masstimes.org
 MASS TIMES FOR TRAVEL

여름 휴가 중 가까운 성당 및 미사 시간 찾기

* * *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8월 14일 (연중 제20주일)

주일헌금 \$ 7,035.00
 교무금 \$ 6,830.00
 교무금(신용카드) \$ 5,990.00
 특별헌금 \$ 4,100.00
 2차 헌금 \$ 0.00
합계 \$ 23,955.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투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8월 21일 라우든1
 8월 28일 라우든2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민복(이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창덕 (비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백첨(프란치스코), 임현석(아버뜨), 손범기(펠릭스),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장동건(스테파노), 정중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안토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례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마카렐라), 이슬(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공경석** 자 : **공 Patrick(파트리치오)**
 ◆ **김성대** 녀 : **김혜진**

- 일시: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4시
- 장소: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채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릴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Kitchen, Deck Sunroom 혜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들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Golf Lesson 성인레슨 및 월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손 678-800-3451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김주현 회계사, 세법학 석사 Julie J. Kim CPA, MST 회계, 세무, 감사 jkim@juliekimcpa.com 703-462-9924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민 자동차정비 703-869-969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